

2015년 제1차 지역인터넷신문 워크숍, 제주에서 열려



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과 21일 제주 이비사호텔에서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와 공동으로 '바람직한 인터넷신문의 역할과 언론조정·중재 제도'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.

인터넷 신문 보도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, 보도로 인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방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는 (사)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소속 12개 언론사 대표 및 소속 기자들이 참석해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,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.

1부 강의는 양재규 교육콘텐츠팀장이 언론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, 2부 강의는 여운규 교육운영팀장이 조정 사례를 통한 위원회 조정과 중재 절차 등을 소개하였다.

이 날 워크숍에서는 국가기관이 낸 보도자료의 내용대로 기사화한 언론사의 책임 여부에 대해 열린 토론이 오갔다. 대구경북 지역 인터넷신문 <평화뉴스>의 유지웅 편집장은 “해당 기관 혹은 당사자에게 전화만 해보면 금세 확인할 수 있는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고 기사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”고 하면서 언론 스스로 팩트체크에 좀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. 이 외에도 기사삭제, PR보도 등 다양한 형태의 분쟁해결이 가능한 위원회 조정중재제도의 장점에 대해 참석자 대부분 공감을 표했다.

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부산과 광주 지역에 교육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인터넷신문 등을 대상으로 한 언론피해 예방 교육과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.